

홍기문(洪起文)의 『朝鮮文典要領』(1927) 문법 고찰

오충신

중국문화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국문 초록

1876 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후 외국 세력이 조선반도에 들어오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외부 세력으로 인한 수많은 변화 중에 나라를 살려야 하는 애국정신과 한국어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날로 높아졌다. 따라서 그때 한국어 문법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은 특색이 있는 문법 이론들이 나타났다. 홍기문(洪起文)의 『朝鮮文典要領』(1927)도 그 중에 한 대표가 될 만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가 지은 문법서 중에는 1927 년의 『朝鮮文典要領』과 1947 년의 『朝鮮文法研究』이란 문법서를 대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한국어 문법 체계는 다른 동기 학자처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조선반도 광복 이후 월북해서 그런지 대한민국 국어학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그의 문법 체계는 크게 보면 3 부법으로 구성된 어학적 논술이지만 음운론과 문장론은 따로 설정하여 규명하지 않았고 주로 품사 범위에서 문법 체계를 논술했다. 그의 한국어 문법 체계에 나타난 규범은 현대까지 이어 받아들인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명사 후치 표현의 「格詞, 後系詞」와 활용에 준한 「終結詞」이라 할 수 있다. 「格詞」는 서

양 문법에 맞추는 현대의 「格助詞」에, 「後系詞」는 「格詞」에 다시 오거나 서로 거듭하여 쓰이는 언어단위는 현대의 「補助(助)詞」에 해당한다. 「終結詞」는 서양의 문체법(敘法/Mood)에 따라 다시 이들을 5가지의 등급(語階(대우법)) 유형을 나룬다는 것은 그의 근대 하국어 문법 체계 정립에 큰 공을 바치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키워드: 홍기문, 『朝鮮文典要領』, 한국 근대문법, 한국 개화기, 격사, 후계사

1.서론

대산(袋山) 홍기문(洪起文)은 1903년에 홍명희(洪命熹)와 민씨(閔氏)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역사, 수학, 어학 등은 스스로 독학으로 했으면서 증조부가 친히 한학(漢學)을 가르쳤다¹. 1930년대에 조선일보 학예부장과 월간 『조광(朝光)』 주간을 거치는 한편 1927년에 「조선문전요령(朝鮮文典要領)」을 현대평론(現代評論)에 5회에 걸쳐 발표한 이후, 국어 연구에 정진하였다². 홍기문의 한국어 문법개관은 당시 한국 30년대의 문법 체계를 세우자는 어느 관련된 단체에도 소속하지 않았고 독자적이었다³. 그의 문법 저술은 어떤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다 없지만 아버지 홍명희와 외국 유학 생활을 통해서 한국어에 관한 인식과 신지식을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홍기문이 지은 문법서 중에는 1927년의 『朝鮮文典要領』과 1947년의 『朝鮮文法研究』이란 문법서를 대표할 수 있다. 이 두 문법서는 인위적 규범회시키는 1930년 『언문철자법(諺文綴字法)』과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전후에 나타난 것이다. 물론 1947년의 『朝鮮文法研究』은 1927년의 『朝鮮文典要領』을 기반으로 수정해 온 문법서이지만 기존 맞춤법이 도입되기에 개인 연구 주장과 기존 규칙에 따라 수정하는 문법 성질이 서로 달라졌다. 즉, 1927년의 『朝鮮文典要領』은 홍기문의 초기 독자적 한국어 지식을 갖춘 문법서이고 1947년의 『朝鮮文法研究』는 기존 규칙에 맞추거나 수정한 또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문법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¹ 강영주(2004)

²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³ 주시경이나 김두봉, 취현배 등은 한국어 문법계의 주류를 이루는 ‘조선어학회’나 박승빈 계열의 ‘조선어학연구회’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학회 활동 방법을 통해서 단체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던 대표학자로 꼽힐 수 있다

⁴ 유목상(1990)에서는 『조선문전요령(朝鮮文典要領)』 등의 문법서에서 품사분류의 기준은 한학을 공부한 것에서 그 연유를 찾았다고 한다. 양명희(2002)에서는 홍명희는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1919년을 전후하여 조선에 돌아와 당시 나이 17세였던 대산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홍기문은 1922년에 중국으로, 1925년에 일본 니혼대학교에 유학을 간 적이 있었음으로 추측할 수 있다.

국 초기 문법가 홍기문(洪起文)의 『朝鮮文典要領』을 대상으로 그의 한국어 문법 체계 특징과 한국어학사적 위치를 고찰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2. 홍기문의 『朝鮮文典要領』의 어학적 특징

한국 개화기 초기부터 서양과 일본의 영향으로 한국 학자들이 지은 한국어 문법서 내용은 대부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답습한 문법 체계였다. 서양이나 일본의 문법 체계에 따라 한국어를 그대로 분류하여 해석한 일이 보통이다. 홍기문은 일제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어를 살려야 나라가 국부민강해질 수 있다는 애국 정신으로 『朝鮮文典要領』을 지었다. 홍기문의 한국어 문법 체계는 개회기 학자들의 정수를 이어 세분화시켜 또는 서양의 란티어계 후치사 표현을 수용하는 것, 일본어의 형태론적 어학 항목 명칭을 차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문법서라고 할 수 있다.

2.1. 한국어 자음과 모음의 의미적 교체

개회기 시대 한국어 문법 체계의 정립은 주로 음운론, 품사론, 통사론 3 부법을 위주로 발전해 나갈 방행이었다. 그 중에 음운론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어지는 부분이었다. 주시경⁵, 김두봉⁶, 이규방⁷ 등 학자들은 『훈민정음』을 토대로 하여 근대적 음운 지식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었다는 업적 이외에는 일본 문법 체계 색채가 진한 한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주로 자음의 명칭과 모음간의 조립에 관한 소개가 대부분이었다⁸.

⁵ 『國語文典音學』(1908)

⁶ 『조선말본』(1916), 『김두봉조선말본』(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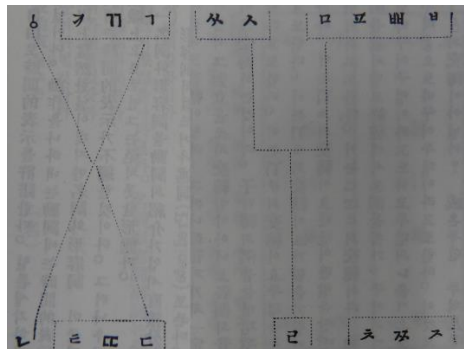
⁷ 『新撰朝鮮語法』(1922)

⁸ 李鳳雲의 『國文正(整理)』(1897), 俞吉濬의 『大韓文典』(1908) 등

<표 1> 『朝鮮文典要領』 母音轉

양성모음	대립 음성모음	의미 전환
ㅏ	ㅑ ㅡ	淡한 의미로
ㅓ	ㅕ ㅣ	보담들하게
ㅗ	ㅛ ㅜ	보담들하게
ㅜ	ㅠ	濃한 의미로
ㅛ	ㅠ	보담더하게
ㅠ	ㅢ	보담더하게

<표 1>에서 보듯이 홍기문은 한국어 자모 숫자나 구성 체계를 다루지 않았고 자음의 공기도와 모음이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 서로 음절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의미적인 변화가 있는지를 다루었다.



<그림 1> 『朝鮮文典要領』 子音轉

<그림 1>에서 보듯이 홍기문은 한국어 자음이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교전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떤 의미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했다. 결국 홍기문의 자음전에 대해 평음, 격음, 경음으로 3 단계로 거치는 형상과 <그림

1>처럼 초성전(위)⁹, 종성전(아래)¹⁰ 등 2 가지의 자음전을 제시했다. 두 가지의 음전이 일어나면 의미적으로 차이가 느끼게 하지만 어떤 의미 차이인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

2.2. 조사 체계 세분화

개회기 시대의 문법서에 기재된 「조사」내용은 주로 「助詞/後置詞/後詞/吐…」 등으로 어학 항목을 명명하여 명사 후치와 용언 활용 표현 양상을 동시에 기술한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유길준(1908)¹¹, 김규식(1908/1910)¹², 주시경(1910)¹³, 김희상(1911, 1927)¹⁴, 남궁억(1913)¹⁵, 이규방(1922)¹⁶ 등 한국 학자들이 한국어 「조사와 어미」를 같은 문법 범위에서 통사적으로 다루었다. 그들은 「조사」가 명사와 어울린 「X 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립하지 않았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안확의 『조선문법』(1917)의 품사 항목 명사에서는 명사와 조사가

⁹ 「깜깜」을 「캄캄」으로 바꾸는 경우.

¹⁰ 예문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음운적 비음화와 일부 불규칙활용임을 추측한다.

¹¹ 『大韓文典』(1908): 後詞_ㄴ、_ㄴ 名詞의 後에 附_ㅎ、야 其上下詞의 關係를 示_ㅎ、_ㄴ、_ㄴ者니 蓋名詞가 後詞를 得_ㅎ치 못_ㅎ、_ㄴ즉 動_ㅎ치 못_ㅎ、_ㄴ故로 名詞及後詞_ㄴ、_ㄴ 相離_ㅎ치 못_ㅎ、_ㄴ、_ㄴ 關係가 有_ㅎ、니라.

¹² 『大韓文法』(1909): 後詞라 _ㅎ、_ㄴ은 名詞나 名詞의 對遇에 其名詞로 _ㅎ、여곰 副詞節을 成_ㅎ、_ㄴ、_ㄴ것을 云_ㅎ、_ㄴ이니 …

¹³ 『國語文法』(1910): <것> 임기의 만이 나옴기의 자리를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¹⁴ 『朝鮮語典』(1911): (1)助吐: <1>格位吐: ①主位吐(이/가) ②客位吐(을/를), <2>轉成吐, <3>意思吐…

『울이글틀』(1927): (1)助吐: <1>格位吐: ①主位吐(이/가)(임자 것) ②客位吐(을/를)(애임 것), <2>形容을 나타낸 기능, <3>副詞格을 나타낸 기능…

¹⁵ 『조선어법』(1913):

(1)당신은 크_오.

(2)사람이 가_오.

(3)당신~~일지~~라도 여기는 못 안_ㅈ겟소.

(4)몸이 ~~클지~~라도 여기는 못 안_ㅈ겟소.

「토」란 기능은 (1)명사, (2)대명사, (3)형용사, (4)동사 등에 와서 그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

¹⁶ 『新撰朝鮮語法』(1922): 助詞라함은 名詞下에 附하여 上下의 語를 承接하여 其意味의 通達을 助하여 又は 其關係를 明確케 하며 或은 語句를 終結하는 辭니 俗所謂吐의 一種이라.

(1-1)語句의 中間: -가, -이, -를, -을, -는, -은, -와, 과, -의…

(1-2)語句의 終結: -(이)다, -(이)냐, -(이)니라, -(이)리라…

어울려서 「위격」이 나타난 체계를 정립했으나 『수정 조선문법』(1923)에 와서 치위 버려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위격 분류를 홍기문의 격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안확의 『조선문법』(1917)과 홍기문의 『朝鮮文典要領』(1927)격사 대비

『조선문법』(1917)		『朝鮮文典要領』(1927)	
명사(위격)		格詞	
(1)主格	-이/가	(1)主格	-가, -이, -시 게 서, -시 게 압서
(2)客格	-을/를	(2)客格	-를/르 , -을
(3)呼格	-이여/여/아/야	(3)呼格	-아, -야, -여, -이
(4)目的格	-의	(4)持格	-의
(5)連格	-에게서/에서	(5)奪格	-로서, -으로서, -서, -에서, -게서, -에게서
(6)與格	-에게/게	(6)與格	-에, -에게, -시 게 로, -더러, -한테, -게, -께
(7)從格	-으로/로/노	(7)役格	-로, -으로
(8)辨格	-은/는	(8)共格	-와, -과, -하고
		後系詞	
		(9)名詞專門	-아마, -까지, -보담, -처럼, -만큼만치, -껏, -ㅅㅅ一口, -씩, - -만, -도, -은, -는, -나, -이나, -야, -이야
		(10)副詞(助)通用	(1)格詞+ 後系詞: -로만, -게만, -와만, -로 도, -게도, -와도… (2)後系詞+ 後系詞: -보담만, -보담도, -보담 은, -보담이나… (3)接續詞+ 後系詞: -디가만, -다가도, -다가

	는, -다가나, -다가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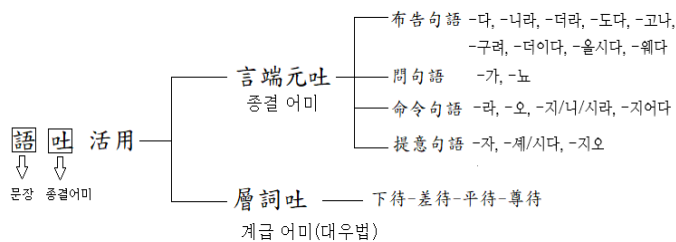
<표 2>에서 보듯이 안과과 홍기문의 조사 분류는 (1)主格, (2)客格, (3)呼格 등 3 가지는 같은 문법 항목이며 같은 조사를 다루었다. 안확의 (4)目的格, (5)連格, (6)與格, (7)從格은 각각 홍기문의 (4)持格, (5)奪格, (6)與格, (7)役格에 해당한다. 안확의 (8)辨格에서 다루는 「-은/는」은 바로 홍기문의 後系詞에 해당하는 조사류이다. 홍기문은 과거 개화기 시대 학자들의 문법서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하여 관계언을 다시 통사적으로 다루었다. 그는 현대 문법에 해당하는 「조사」를 통사적 문장 구성할 때 「X 格의 助詞」란 언어 요소는 「格詞(격사)」라고 지칭한다. 서양의 문법에 맞춰 일부 격(case)을 이룰 수 있는 한국어의 「格詞(격사)」를 8 가지로 나누어 본다. 다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격사, 접속사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 요소들을 「後系詞(후계사)」라고 부른다. 전자는 바로 현대 문법에 해당하는 「格助詞(격조사)」이고 후자는 「補助(助)詞(보조(조)사)」의 모델이다. 홍기문은 격을 이룰 수 있는지를 선행조건으로 하여 해당「조사류」를 정립하며 격사나 다른 품사에 형태적으로 더할 수 있는 언어 요소를 후계사라고 정립하였다. 결국 안확은 「(8)辨格」이란 항목에 「-은/는」를 구분시켜 정립하기 시작했지만 끝까지 의미적으로 조사의 기능을 확대시켜 연구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다. 홍기문은 통사적으로 안확의 위격을 이어 현대 문법에 해당하는 보조사를 발견해 냈다.

2.3. 「終結詞」에서 나타난 통사적 문체법 체계

개화기에 한국어 어절 구조 연구에 관한 「문장론」을 다루는 학자는 유길준¹⁷, 김규식¹⁸, 주시경¹⁹, 김희상²⁰, 남궁억²¹, 안확²², 이규방²³ 등이 있다. 유길준, 주시경, 안확 그리고 이규방은 주로 문장 구성 요소나 성분을 다루었고 남궁억은 주로 9 가지의 문체법을 다루었다. 김규식, 김희상은 보다 전반적인 시각으로 한국어 문장 체계를 다루었다. 그들은 문장 성분의 조립 유형을 먼저 세워 보고 토(종결어미)의 의미에 따라 문장 문체법(mood)과 이에 준한 대우(antithesis)²⁴를 분류하기도 했다. 홍기문도 김규식과 김희상의 문장론 내용 추측을 이어 「終結詞」에서 한국어 문장론을 다루었다.

¹⁷ 유길준 『大韓文典』(1908): 주어(主語), 설명어(說明語), 객어(客語), 수식어(修飾語), 보족어(補足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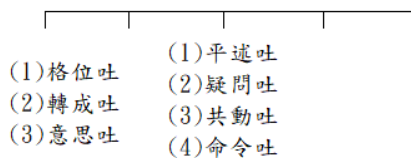
¹⁸ 김규식 『大韓文法』(1909):



¹⁹ 주시경 『國語文法』(1910): 잠듬갈: 임이불이(主者部或主者屬), 씬이불이(物者部或物者屬), 남이불이(說者部或說者屬).

²⁰ 김희상 『朝鮮語典』(1911): 其部分의 意義에 依하、야 主部說明部及客部の 三個部分이 有하、니라. (1)주부(主部), (2)설명부(說明部), (3)객부(客部).

助吐 接續吐 終止吐 感嘆吐 變動吐



(2)토(吐)의 계급을 上待(-하、압시오), 中待(-하、오), 半待(-아(반말)), 下待(-하야라), 半半待(-하、계) 등 5 가지로 나눠보고 있다.

²¹ 남궁억 『조선어법』(1913): 토의 쓰임에 따라 열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직설법, (2)연접법, (3)가성법, (4)명령법, (5)욕정법, (6)시부법, (7)감동법, (8)의문법, (9)중지법 등 9 가지였다.

²² 안확 『조선문법』(1917): 主語(주어), 說明語(설명어), 客語(객어), 補語(보어), 修飾語(스식어)

²³ 이규방 『新撰朝鮮語法』(1922): (1)主語, (2)說明語, (3)客語, (4)補語, (5)裝飾語

²⁴ 『朝鮮文典要領』 표제어에는 “語位”라고 적혀 있지만 본문에는 “語法”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표 3>김규식, 김희상, 홍기문의 문장론 구성 대비

학자 문법서	문장론		
	성분	대우	문체법
김규식 『大韓文法』(1909)	(1)主語(주어) (2)說明語(설명어) (3)客語(객어) (4)修飾語(수식어) (5)補足語(보족어)	(1)下待 (2)差待 (3)平待 (4)尊待	(1)布告句語 (2)問句語 (3)命令句語 (4)提意句語
김희상 『朝鮮語典』(1911)	(1)主成分 <1>주부(主部):主語 <2>객부(客部):客語 <3>설명부(說明部):說明語 (2)副成分 <1>修飾語	(1)上 (2)中 (3)半 (4)半半 (5)下	(1)平敘吐 (2)疑問吐 (3)自問吐 (4)共動吐 (5)命令吐
홍기문 『朝鮮文典要領』(1927)	없음	(1)존대 (2)하오 (3)하게 (4)해라 (5)반말	(1)直說法 (2)疑問法 (3)命令法 (4)共同法 (5)約束法

<표 3>에서 보듯이 김규식은 한국어 문장 성분과 문체법 그리고 이에 준한 대우 등급을 고르게 제시했다. 김희상은 대우 등급과 문체법의 종류를 각 하나씩 추가로 했으며 그 체계를 한층 더 인상시켰다²⁵. 홍기문은 한국어 문장론을 따로

²⁵ 양해승(2014)에서는 이 시기는 한국어 대우법 등급 및 실현방법에 크게 기여해 준 학자는 김

다루지 않았지만 품사 학목인 「終結詞」에서는 (1)존대, (2)하오, (3)하게, (4)해라, (5)반말 등 5 가지의 位階(대우법)와 (1)直說法, (2)疑問法, (3)命令法, (4)共同法, (5)約束法語法 등 5 가지의 문장 표현 문체법(Mood)) 구조를 제시하며 한국어 종결 어미류를 통사적으로 체계화했다. 홍기문의 문장론 내용 구성으로는 김회상과 거의 일치하다. 추상적인 “上中下半”의 등급을 어학적 어미 종결 형태로 대신하여 현대 문법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홍기문의 대우법과 문체법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 <표 4>과 같다.

<표 4>홍기문의 終結詞의 기본형

位階 (대우) 語法 (문체법)		존대	하오	하게	해라	반말
直說法	名詞	-이다	-요	-데=일네	-더라	-지
		-르/을씨다		-에=일세	-라	-야
				-리	-다라	-여
	動詞	-이다	-오	-데	-다라	-아
				-에	-ㄴ/는다	-어
				-리	-리라	
	形容詞	-이다	-오	-데	-더라	-아
				-에	-다	-어
				-리	-리라	

회상, 김두봉 등을 뽑을 수 있다고 한다.

	副詞	-이다	-요	-데=일네 -에=일세 -리	-더라 -라 -다라 -이라	-지 -야 -여
疑問法	名詞	-이까	-요	-가	-야	-지 -야 -여
	動詞	-이까	-오	-가	-야 -다	-지 -아 -어
	形容詞	-이까	-오	-가	-야	-지 -아 -어
	副詞	-이까	-요	-가	-야 -다	-지 -야 -여
命令法	動詞	-소서	-오	-게	-어라 -거라 -라	-지 -아 -어
	形容詞	-	-	-게	-어라 -거라	-지 -아 -어
共同法	動詞	-	-	-세	-자	-
	形容詞	-	-	-세	-자	-

約束法	動詞	-	-	-ㄴ세	-마	-
	形容詞	-	-	-ㄴ세	-마	-

<표 4>에서 보듯이 홍기문은 한국어 일부 종결어미를 대우법과 문체법 유형에 따라 정립했다. 그러나 「존대」등급에는 「名詞, 副詞, 動詞, 形容詞」에 오는 종결어미는 본문 해석과 약간 차이가 있다. 『朝鮮文典要領』에 기재된 예문을 정리하면 다음 결과와 같다.

(ㄱ)N+ 이다/올씨다.

(ㄴ)Adv+ 올씨다. (예문 없음)

(ㄷ)V+ [(는(現在)/든(回想)/더(回想)/나(恭遜))+ 이다/까],

(ㄷ')A+ [+ 이다/까] (예문 없음)

(ㄹ)V+ [ㅁ/읍되다=ㅁ/읍너다=ㅁ/읍니다;

ㅁ/읍되까=ㅁ/읍너까=ㅁ/읍니까]

(ㄹ')A+ [+ ?] (예문 없음)

홍기문의 『朝鮮文典要領』에서는 「名詞, 副詞, 動詞, 形容詞」 등 품사는 모두 「존대」대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형용사로 든 예문은 찾아보지 못했다. 홍기문의 문장론 내용은 미흡한 데가 있지만 「終結詞」 내용만 봐도 근대 문법 형상이 점점 현대 문법으로 탈바꿈하게 될 추세가 보이기도 한다.

3.결론

홍기문의 『朝鮮文典要領』(1927)은 1895년 이후 한국 근대 여러 한국 학자들이 지은 문법서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학자처럼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조선 반도 광복 이후 월북해서 그런지 대한민국 국어학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다. 그의 문법 체계는 크게 보면 3부법으로 구성된 어학적 논술이지만 음운론과 문장론은 따로 설정하여 규명하지 않았고 주로 품사 범위에서 문법 체계를 논술했다. 이것도 근대 규범문법이 발달해진다는 전형적인 문법서이다. 그의 한국어 문법 체계에 나타난 규범은 현대까지 이어 받아들인 대표적인 부분은 바로 명사 후치 표현의 「格詞, 後系詞」와 활용에 준한 「終結詞」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개화기 초기 학작들의 「助詞/吐/助動詞」 내용을 등을 「格詞」와 「後系詞」를 통사적으로 나타난 위치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 본다. 「格詞」는 서양 문법에 맞추는 현대의 「格助詞」에, 「後系詞」는 「格詞」에 다시 오거나 서로 거듭하여 쓰이는 언어단위는 현대의 「補助(助)詞」에 해당한다. 개화기 시대의 문법서에 기재된 조사에 대한 논술이나 분석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면이 많았다. 홍기문은 처음으로 서양 문법에 맞춰 한국어 문법을 다루는 것을 인정하며 통사적으로 한국의 조사를 양분화시켜 다루었다. 그리고 문법「終結詞」는 서양의 문체법(文體法/敘法/Mood)에 따라 다시 이들을 5가지의 등급(語階(대우법)) 유형을 나룬다는 것은 그의 근대 한국어 문법 체계 정립에 큰 공을 바치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A Study on the Grammar System of Hong Gimun's "jo-seon-mun-jeon-yo-hyeong (1927)"

Wu, Chung-Hsing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inese Culture University

Abstract

Hong Gimun (홍기문), also known as Daesan (대산), was one of the modern Korean linguists. He was born in 1903 and was the eldest son of Hong Myeonghyi, who later served as the Deputy Prime Minister of Korea. From a young age, Hong self-studied history, mathematics, and linguistics, receiving guidance in Chinese studies from his grandfather. Liv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he felt anger towards the gradual neglect of the Korean language. In response, he published his work "Essentials of Korean Grammar" (1927) in the "Modern Commentary," presenting the grammar of the Korean language and establishing norms for the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system. "Essentials of Korean Grammar" (1927) primarily focuses on parts of speech, but it also includes aspects of phonetics and syntax. Hong Gimun advocated for a Korean language grammar system that, during the modernization period in Korea, stood between the agglutinative school of Ju Sigyeong and the copulative school of Park Seongbin. He openly acknowledged the incorporation of European and American grammar systems into Korean and accepted the use of linguistic terms translated from Japanese. Hong Gimun's work attracted attention for two main reasons. First, he pointed out that alternations in the Korean alphabet's sound system could lead to semantic changes. Second, he accurately classified Korean particles and endings into "case words (modern grammar's case particles)", "postpositional words (modern grammar's supplementary particles)", and "terminal words (modern grammar's ending particles)". Following Western grammar systems, he standardized five antithesis (대우) and five moods (문체법), providing a more comprehensive framework compared to the earlier grammatical systems of Kim Gwichok and Kim Heesang.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Hong Gimun's various assertions and norms regarding Korean grammar in "Essentials of Korean Grammar" (1927). While his grammar system is not widely recognized in the present day due to his later involvement in North Korea,

he was once a patriotic scholar in modern Korea. His grammar system remains an important reference for North Korean grammar. Therefore, it is still necessary to organize and evaluate the grammatical system outlined in the "Essentials of Korean Grammar."

Keywords: modern Korean grammar, Korean modernization period, case words, postpositional words

참고자료

- 강영주(2004), 【특별연구】「국학자 홍기문 연구」, 『역사비평 2004 년』 가을호(통권 68 호), 154-198.
- 강영주(2010), 「국학자 롱기문 연구 2: 1930 년대 홍기문의 언론헌동과 학술연구」, 『역사비평 2010 년』, 가을호(통권 92 호), 250-290.
- 권재일(2005), 『20 세기 초기 국어의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규식(1908), 「大韓文法」, 『歷代韓國文法大系』 1 부 5 책, 탑출판사.
- 김규식(1912), 「朝鮮文法」, 『歷代韓國文法大系』 1 부 5 책, 탑출판사.
- 김민수(1977), 「金奎植 『大韓文法』 의 연구」, 『高麗大 人文論集』 22, pp.1-31.
- 김희상(1911), 「朝鮮文典」, 『歷代韓國文法大系』 1 부 7 책, 탑출판사.
- 양명희(2002), 「홍기문의 국어 문법 연구」, 『어문연구』, 30(3), 73-91
- 양해승(2014), 「20 세기 초기 한국어 대우법 연구사-『약대한국문법대계』에 나타난 이론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63, 131-174.
- 유몽상(1990), 「홍기문(1947) 조선문법연구」, 『주시경학보』 5
- 최낙봉(1996), 김규식 문법의 품사 설정, 『동남어문논집』 6, 동남어문학회, pp. 187-208.
- 허재영(2004), 유길준의 『조선문전』 과 『대한문전』 연구, 한글학회, 한힌샘주시경 연구 17, 2004.1, 33-63.

